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라 불교를 일으킨 주체는 누구였을까?

다양한 신분 출·재가자가 불교 중흥

1. 흥법의 주체

역사는 시간 위에서 공간을 점유한 인간에 의해 변화한다. 때문에 역사의 주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역사의 능동적 동인이라면 그의 행위는 역사의 대상이 된다. 불교의 주체인 불자(佛子)는 붓다의 제자이자 붓다의 아들이다. 그는 유자(儒者)에 상응하는 불자(佛者)이며 불교를 믿고 행하고 깨치는 사람이다. 해서 불자는 불교의 중심이자 근간이 된다. 철학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면 불학하는 사람은 불학자이다. 불교의 주체인 불교적 인간은 붓다의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信]하고 이해[解]하고 실행[行]하고 체증[證]하는 사람이다. 그는 붓다의 교설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불교적 인간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위에서 중도적 실천행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불교적 인간은 불교의 주체이자 세계의 주체가 된다.

〈삼국유사〉 ‘흥법’ 편을 통해 일연이 제시하는 불교적 인간 역시 연기적 세계관 위에서 중도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는 상호의존성[緣起性] 위에서 비고유성[無自性]과 비실체성[空性]을 통찰해 상호존중행[慈悲行]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일연이 이 편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흥법의 주체들은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순도, 보덕과 그의 제자 무상(無上)·적멸(寂滅)·의용(義融)·지수(智壽)·일승(一乘)·수정(水淨)·사대(四大)·개원(開原)·명덕(明德)·개심(開心)·보명(普明)의 11인, 백제의 침류왕과 마라난타, 아신왕과 범왕, 눌지왕과 아도 및 목호자, 비지왕과 눌지왕, 범종왕과 이차돈(乙祿), 모

뫼태 서원(誓願)에서 마감된다. 불교 공부에 대해 소개하는 책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머리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인 발보리심의 마음이 담긴 불교의 경전과 불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인간은 흥법의 주체가 된다. 일연이 세운 ‘흥법’ 편은 주인공들은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로 짐작된다.

2. 성인과 현인

‘흥법’ 편 마지막에 자리한 ‘흥륜사 금당 심상’ 조목에는 열 명의 성현이 자리하고 있다. 불교는 52 단계로 보살의 계위를 시설하고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확립된 25위의 보살계위는 10신, 10주[解], 10행, 10회향, 10지, 등각, 묘각의 단계로 시설되고 있다. 이중 화엄에서는 10신을 전체에 42위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라유사(眞測)에서는 10신을 전체하지 않고 자량위에 머물러 있는 범부 등 모든 이들을 섭수하기 위해 52위를 세운다. 반면 당대유식(窺基)에서는 범부 아래의 10신을 전체하고 수승위 이후부터 등각과 묘각을 불교로 통합해서 41위를 시설하고 있다.

보살이 불위(佛位)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햇수를 삼아승기검(三阿僧祇劫)이라 한다. 52계위 중 10주, 10행, 10회향의 3위를 수행해 마치는데 1아승기검을 지내는 동안 7만 5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10지 중에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기까지 수행해 마치는데 제2아승기검을 지내는 동안 7만 6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제8지에서 제10지의 수행을 마치는데 제3아승기검을 지내는 동안 7만 7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이때 10주, 10행, 10회향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삼현(三賢)이라 하고 10지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십성(十聖)이라 한다.

‘동경 흥륜사 금당 심상’ 조목의 10성은 재가자인 염촉과 사파를 제외한 나머지 아도 혜숙 안함 의상 자장 해공 원효 표훈의 8성은 출가자이다. 성인이 붓다와 보살 또는 중생 제도를 위해 출현한 출가의 성자라면, 현인은 지혜를 갖춘 재가의 달인이다. 염촉과 사파는 분명 재가자였고 아도로부터 표훈에 이르는 8인은 출가자였다. 신라의 최초의 절에는 이들 성인과 현인의 소상을 조성해 나란히 모셨다. 이것은 중앙의 주불(아미타불)을 시위하는 붓다의 10대 제자가 아니라 신라의 성현을 역할모델로 삼아 흠으로 빛어 모신 독자적인 것이었다. 일연은 신라 초기 ‘흥법’의 세 주체를 아도와 범종과 염촉으로 비정하고 그들을 세 성인으로서 가리고 있다.

일연은 신라 경주의 풍경을 ‘절과 절들이 별자리처럼 떨어져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연이어 섰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신라 불교의 풍경을 ‘덕이 높고 행이 깊은 승려는 천하의 복전(福田)이 되고, 대승과 소승의 불법이 나라의 자원이 됐다.’ 나아가 ‘타방의 보살(菩薩)이 세상에 나타났고 서역의 명승(名僧)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서술했다. 일연은 타방의 (불)보살로서 진나보살과 보게여래와 오대보살을 제시한 뒤 원효를 ‘분황사의 진나(陳那) 보살



일연은 원효를 분황사 진나(陳那)보살의 후신이라고 지칭했다. 사진은 분황사 석탑

성인은 중생제도 하는 출가자

원효·의상·자장 등 신라흥법 성인

의 후신으로, 의상(義相)을 ‘부석사의 보개(寶蓋) 여래의 화신으로, 자장을 ‘낙산사의 오대(五臺, 文殊) 보살의 화신으로 일컫고 있다. 이처럼 일연은 이들 세 보살을 각기 신라 흥법의 세 성인으로 보았다.

3. 거사와 부인

불교 전통에서 거사(居士, kulapati, grhapati)는 출가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면서 불문에 귀의한 남자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인도의 사성(四姓)제도 중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배살리 종족의 부자[長者]를 일컫었다. 거사는 좋은 집안의 남자를 일컫는 우바새 또는 족성자(族姓子)이자 선남자(善男子)이다. 선남자에서 ‘선(善)’은 ‘선인(善因)’을 가리킨다. 지난 세상에 지은 좋은 일의 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붓다의 교법을 듣고 믿는 남자이다. 또 붓다의 명호를 듣고 열불하는 남자이며 설사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열불하면 선남자라 했다. 거사는 현세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남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거사는 점차 학식과 도덕이 높으면서도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다.

반면 부인(夫人)은 좋은 집안의 여인을 일컫는 족

성녀(族姓女)이자 선녀인(善女人)이며 우바이이다. 선남자처럼 선녀인에서 선(善)은 선인(善因)을 의미한다. 지난 세상에 지은 좋은 일의 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붓다의 교법을 듣고 믿는 여인이자. 또 붓다의 명호를 듣고 열불하는 여인으로서 설령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열불하면 곧 선녀인이라 했다. 그리고 부인은 현세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여인을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보살의 자비심에 기초한 모성애로 인해 보살로 통칭되고 있다. 하지만 여인들만 보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사들도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사는 유마힐(無垢稱) 거사와 급고(須達) 장자 및 월개(月蓋) 장자 등이다. 유마힐 거사가 주인공인 〈유마경〉에서 그는 붓다의 재가 제자로 등장한다. 그는 인도의 비야리국의 장자로서 재가에 있으면서 보살 행업을 닦았다. 유마거사는 수행과 언변이 빼어나 붓다의 여러 제자들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다.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부설거사(陳光世) 소성거사(元曉) 청평거사(이차현) 월창거사(김대현) 이침선 거사 효성거사(조명기) 백봉거사(김기추) 종달거사(이희익) 덕산거사(이한상) 불연거사(이기영) 무애거사(서돈각) 등의 거사들이 등장했다. 반면 제일 대표적인 부인은 승만이다. 사위국 박사(박)의 딸인 승만은 아사국왕인 우칭(友稱)의 부인이 됐다. 그 뒤 붓다에게 자기의 사상을 여주자 붓다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

현인은 지혜 갖춘 재가의 달인

유마거사·승만보살 역할 모델

며 부인에게 수기를 준다.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덕만부인(선덕여왕), 승만부인(진덕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부인이 등장했다.

〈삼국유사〉에는 ‘흥법’의 주체들인 승려들과 거사들과 부인들의 용례가 적지 않게 등장했다. 때로는 불보살이 그들의 모습을 빌어 화신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들이 불보살로 승화되기도 한다. 승려와 거사와 부인이 향상문(向上門)으로 나아가면 불보살의 화신이 되고, 향하문(向下門)으로 내려오면 다시 승려와 거사와 부인이 된다. 미혼의 경우에는 동남과 동녀라고 할 수 있지만 기혼의 경우에는 거사와 부인의 호칭이 자연스럽다. 이름은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불교사에서는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이 재가불자의 역할모델로 확립돼 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거사보다 부인의 호칭이 부족하다. 보살이라는 호칭은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호칭 또는 지칭이 되어야 한다. 일연은 신라 ‘흥법’의 주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적 인간은 발심·서원의 존재

‘흥법’ 편서 불교적 인간관 제시

례와 사씨(史氏) 비구니, 안함, 자장, 해공과 혜숙, 원효와 의상, 사파와 표훈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삼국의 불교를 흥통시킨 자들이다.

이들의 신분은 왕에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교를 공인한 왕 외에도 불교를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범종왕과 진흥왕처럼 삼국 통일 이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진평왕 때의 왕손이었던 원축,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상을 비롯해 성덕왕은 재위 전에 오대산으로 출가했던 비구였다. 이후 그의 아들인 무무와 지장 등도 출가했다. 세간으로 돌아온 왕은 불교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실 정치에 원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존재감을 지닌 대표적인 여성 불자는 사씨 비구니와 덕만부인(선덕여왕)과 승만부인(진덕여왕), 진성여왕과 옥면비, 광덕의 아내, 관음의 화신 남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불교적 인간은 발심하는 존재이자 서원하는 존재이다. 발심은 발보리심의 줄임말이고 발보리심은 ‘발아늑다라삼삼보리사’의 줄임말이다. 즉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해서 불교 공부는 발심(發心)에서 비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p>■ 교육과정</p> <p>(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49재, 천도의식</p> <p>(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육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가지계</p>	<p>■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p> <p>◆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p> <p>◆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p> <p>◆ 수강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p> <p>◆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p> <p>◆ 접수기간 : 상시모집</p> <p>◆ 연락처 : 054)975-4339</p>
--	---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